

병원간호사의 노인 입원 환자 간호경험

이가연¹ · 조정금² · 함승희² · 정명윤²

동아대학교 간호학과¹, 동아대학교병원²

Nurses' Experiences in Caring for Elderly Inpatients in a Medical Center

Lee, Ga Eon¹ · Cho, Jung Kum² · Ham, Seung Hee² · Jeong, Myeong Yun²

¹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²Dong-A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nurses who care for elderly patients in an acute care hospital.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one on one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participants were twelve nurses who worked on the wards of a medical center, B city, Korea. **Results:** Six themes were identified: 'Work pressure', 'Needs for hospital infrastructure for elderly inpatients', 'Ambivalence toward elders', 'Needs for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in care for elderly patients', 'Angry with irresponsible family caregivers', and 'Feels worth in caring for elder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a need to expand the number of gerontological nursing personnel and the construction of a hospital infrastructure that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care for elderly patients. More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and their families.

Key Words: Elderly, Geriatric nursing, Nurse,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012년 약 33%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ics Korea, 2013a). 이와 같이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노인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주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들은 환

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많기에 노인간호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접촉이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해당하는 간호사들은 노인들을 이해할 기회가 부족하여 노인 환자들을 간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노인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낮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노인들이 지니는 간호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Kim, Kim, Kim, & Kim, 2010; Kim & Kwon, 2009; Kim, Lim, & Sok, 2007; Park & Park, 2007). 이러한 간호사들의 실태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노인 환자에게

주요어: 노인, 노인간호, 간호사,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Lee, Ga Eon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2 Daeshingongwon-ro, Seo-gu, Busan 602-714, Korea.
Tel: +82-51-240-2885, Fax: +82-51-240-2920, E-mail: gelee@dau.ac.kr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Received: Aug 18, 2014 | Revised: Sep 18, 2014 | Accepted: Oct 9, 2014

연구방법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노인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등 특정 개념을 위주로 한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어 실제적으로 병원 간호사들이 노인 입원 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하는 것에 폭넓은 이해를 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질적 연구는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에 대한 경험을 보다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노인간호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노인병원(Lee, M.-H., 2010)과 내과중환자실(Kim, 2009)이라는 제한된 임상현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극히 소수의 연구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연구가 이루어진 임상현장은 급성기 종합병원의 일반병동과는 상황적 맥락이 다르기에, 노인 환자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노인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종합병원에서 노령인구의 평균 재원일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Statistics Korea, 2013b), 종합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병원 간호사들의 노인간호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는 관심 현상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그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Van Kaam (1969)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내용을 수치로 제시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있다(Kim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병원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입원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환자 간호 경험에 대해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로서 추후 의료기관에서 노인 환자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병원 간호사들이 노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그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병원 간호사가 노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한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는 일 광역시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 12명으로 직접 환자 간호에 참여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병동의 간호 관리자인 수간호사는 제외하였으며, 경력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도 간호업무 파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제외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병원에서 다른 병동에 비하여 노인 환자 입원율이 높다고 파악된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및 비뇨기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었다. 참여자는 일차적으로 연구에 대한 간호부의 허락을 받아 연구자의 지인 중 연구 현상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을 설명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로 표출하였다. 이 때 연구결과를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노인간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파악된 연령, 결혼 상태(Jung & Yun, 2012; Kim et al., 2010)와 노인과의 동거 여부(Lee, 2011)의 특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구성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 10명과 남자 2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4명, 30대 5명, 40대 2명, 50대가 1명으로 평균 연령은 34세였다. 근무경력은 2년에서 25년 사이로 평균 근무경력은 11년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11명, 3년제 대학 졸업 1명이었고, 종교가 있는 자가 8명, 없는 자가 4명이었다. 기혼자가 8명, 미혼자가 4명이었고, 현재 노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자가 3명, 과거 동거한 경험이 있는 자가 2명이었으며, 동거 경험이 없는 자가 7명이었다.

3. 연구자 준비

연구자들은 현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서 평균 9년 정도의 간호사 경력이 있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질적 연구의 철학적인 배경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4개월간 매주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가졌다. 이후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비연구를 시행하여 자료수집과 자료분석방법을 훈련하였으며, 본 연구자료수집과 자료분석 시에는 교수가 함께 참여하였다. 자료분석 시에는 연구팀들 간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연구회의를 하면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며 메모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관련 문헌에 대한 심층적인 탐독을 의도적으로 삼가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참여자와의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참여자가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병동 내 면담실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졌다.

면담에서 주로 사용한 질문은 ‘노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노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좋았거나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노인 환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안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등이었다. 그러나 참여자와 면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다양한 질문을 이용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MP3에 녹음하였으며, 면담 시에는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으며,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질문 등을 메모하였고, 면담 후에는 가능한 빨리 녹음한 내용을 듣고 필사하여 분석하였다. 일차 면담 후에 필사본을 읽고 개략적인 분석을 한 후 차후 면담 질문을 구상하여 이차 면담을 하는 등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 하였다. 참여자 개별 면담횟수와 참여자의 수는 관심 현상에 대한 자료의 포화상태가 된 시점으로 하였다. 참여자 일인당 면담회수는 1~2회였으며, 1회 면담시간은 약 6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참여자들의 면담 필사본과 연구자의 현장노트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쳤다. 분석방법은 현상학적 방법 중 개별 참여자의 특성보다는 전체 참여자가 경험한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둔 Van Kaam (1969)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순서를 찾아내는 양적 특성도 지니고 있어 참여자 전체가 경험하는 내용의 빈도수에 따른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Kim et al.,

1999).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음한 면담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셋째,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 진술에서 공통의 속성끼리 묶어서 부주제와 주제로 범주화하여 자료의 진술 빈도 순위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때 참여자가 다르게 표현하였으나, 동일한 의미인 경우에는 같은 표현으로 묶어서 빈도로 나타내었다. 넷째, 분류된 주제들을 모아서 병원 간호사의 노인 입원 환자 간호경험을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를 진행하기 전 본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가 속한 의료기관 연구윤리심의를 받았다(IRB No. 13-084).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 및 면담과정 등을 설명하였으며,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자료수집과정 중에도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녹음 내용과 기록은 연구종료 후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참여자로부터 연구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마친 후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 시간과 면담 장소는 참여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7.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의 질을 위하여 선행문헌(Guba & Lincoln, 1981; Sandelowski, 1986)을 참고로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가 면담하기 편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참여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면담 전에 다과를 들며 상호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면담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의 진실성을 위해서는 면담 직후에 참여자에게 간략하게 요약하여 확인받았다. 또한 필사된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애매모호한 내용에 대해 참여자에게 되돌려 재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되어 풍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참여자의 연령, 결혼, 임상경력 및 노인과의 동거경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결과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면담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구상하여 다음 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수는 자료의 포화를 기점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연구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자료분석 시에는 연구자들 간의 수차례 반성적인 논의과정을 거쳤다. 끝으로 중립성을 위해서는 면담 시에 진행자의 태도가 참여자의 진술과 행동에 편견이 없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자료분석 시에도 연구자의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파악하여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2명과 참여자 외의 병원 간호사 1인에게 연구결과를 읽어보게 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병원 간호사의 노인 환자 간호경험은 6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6개의 주제를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업무에 대한 부담감>, <노인 환자를 고려한 병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노인에 대한 양가감정>,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가 필요함>, <무책임한 보호자에게 화가 남>과 <노인을 돌봄으로써 보람을 느낌>이다(Table 1). 이는 참여자의 면담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와 절, 194개를 추출하여 그 의미가 비슷한 것 끼리 모아 92개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27개의 부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참여자가 연구현상에 대한 경험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하여 부주제와 주제는 빈도순으로 작성하였으며, 빈도는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Table 1. Nurses' Experiences in Caring for Elderly Inpatients in a Medical Center

Sub-themes	Themes
Hard job demanding a lot of touches (29) Feel provocation at repeated explanations to elderly patients (18) Anxious about falls in elderly patients (17) Requiring constant presence of caregiver (5)	Work pressure (69)
Need for safe and convenient facility and system for elderly patients (18) Need for exclusive space for elderly patients (6) Need for more nursing staff to care for elderly patients (6) Need for professionalized education in care for elderly patients (5) Need for caregivers who are educated systematically (5)	Needs for hospital infrastructure for elderly inpatients (40)
Compassion for the miserable situation of elderly patients (11) Frustrated with elderly patients' stubbornness (7) Relieved at elderly patients' understanding and tolerance (5) Displeased with elderly patients' disrespectful and impolite attitude (4)	Ambivalence toward elders (27)
Recognize elderly patients as people who need protection (6) Slow and easy explanations for elderly patients (4) Need for terminal care to relieve loneliness and discomfort (4) Call elderly patients by his or her name (3) Recognize elderly patients can feel shame like young patients (3) More emotional support for elderly patients' comfort (3) Recognize elderly patients' individual differences (2)	Needs for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in care for elderly patients (25)
Angry with family caregivers' abandonment of elderly patients (9) Difficult to cooperate with spouse caregivers who are also elderly (4) Angry when decision maker is not elders but their children (2)	Angry with irresponsible family caregivers (15)
Pleased with elderly patients who greet me warmly (5) Resolved to take care of elderly patients well, thinking of my parents (4) Resolved to prepare for my life in old age (3) Feels worth in caring for elders to improve their health (2)	Feels worth in caring for elders (14)

1. 주제

1) 첫 번째 주제: 업무에 대한 부담감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 중 가장 높은 빈도는 노인 환자를 돌볼 경우에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하는 것이었다. 즉 노인 환자들은 질병이 많고 상태가 중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손이 많이 가서 힘이 들며,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에 짜증이 나고, 항상 낙상이 걱정되어 불안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노인 환자들이 옆에 보호자가 필요한 사유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모음에는 <손이 많이 가서 힘이 듭>, <여러 번 설명을 해야만 해서 짜증남>, <낙상할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함>,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함> 이다.

<손이 많이 가서 힘이 듭>

지병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지.

기본 병력이 많아서, 힘들고 힘들어요.

약이 많아서...

어르신들은 중환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야. 더 악화돼서 욕창이나, 망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담당간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손이 더 많이 갈 거고 일이 많아지는 부담감... <29>

<여러 번 설명을 해야만 해서 짜증남>

노인 환자들은 두 세 번해야 들으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만들고, 짜증나고...

설명을 해도 귀가 잘 안 들리니, 이해력도 부족하고, 힘들지.

갑갑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18>

<낙상할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함>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낙상을 하진 않을지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주무실 때도 사이드 레일이 올려져 있어도 낙상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있는 거고...

침대가 조금 높다보니까, 밤에 풀대 소리만 나도 어르신이 화장실만 가도, 방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가 걱정인 거지. <17>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함>

혼자 있으면 위험하고, 보호자가 필요해요.

더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낙상이 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졌을 때 대처하는 게 더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

2) 두 번째 주제: 노인 환자를 고려한 병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참여자들의 경험 중에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은 병원에서 노인 환자를 고려한 시설, 인력 및 교육 등의 병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현재 병원의 침대, 병실 등의 시설이 노인 환자들에게 적합하도록 시설개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을 위한 간소한 진료절차와 노인전용 설명문을 제공하는 등의 노인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제시하였으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병동 전용 간병인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그 외 노인 전용 병동과 노인정 같은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노인보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지기를 원하였다.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에 간호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노인의 특성, 의사소통술과 응대법 같은 노인 간호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였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간병인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주제모음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노인 전용공간이 필요함>, <노인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함>, <노인 간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체계적으로 교육된 간병인이 필요함> 이 해당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침대나 스트레치 카는 오르내리기 위험한 것 같고...

병실을 넓히고 보호자 침대도 넓게 시설개선이...

젊은 사람들도 들으면 헛갈릴 정도로 복잡한 게 많은데, 윈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고...

노인 대상자 검사 설명문을 만든다거나, 느린 템포로 맞춰주는 제도...

간병비가 너무 많이 나가... 병동간병인 제도나 간병인 지원제도 같은 것이 되면 좋겠는데... <18>

<노인 전용공간이 필요함>

노인정 같은 공간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노인병동도 필요하다 생각해. 진짜 집처럼 병원을, 가정적인 분위기로 인터리어를 해준다면...

보호자가 지낼 수 있는 환경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6>

<노인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함>

노인 환자가 많아지면 간호업무도 더 많아 지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아요.

간병인이든 간호사든 간에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더 많은 손이 필요해. <6>
 <노인 간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니, 노인 환자의 특수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노인이면 다른 포커스를 맞춰서, 노인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노인 환자 특성을 고려한 대응, 응대법이나 처치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5>
 <체계적으로 교육된 간병인이 필요함>
 체계적으로 교육이 된 간병인이 있어야..
 교육이 된 간병인을 쓰면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지.
 간병인이 있으면 환자 컨디션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고, 우리가 다 못해줄니까..
 업체 내에서도 교육을 잘 해줘야 될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병원에서도 교육을 해야 할 거 같아요. <5>

3) 세 번째 주제: 노인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이 세 번째로 많이 경험한 것은 노인에 대한 양가감정으로서 노인 환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나, 치료절차에 대한 고집을 피울 때는 답답할 때도 많으며 간호사를 낮추어 보는 노인들의 태도에는 불쾌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모음에는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듦>,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여 답답함>, <이해를 잘 해주고 관대하여 마음이 편안함>과 <낮추어보고 반말하여 불쾌함>이 해당된다.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듦>
 나도 늙어가고 부모님도 늙고 하니깐, 안쓰러운 마음도 생기고..
 측은하고, 짠하기도 했죠.
 형편이 안 좋으신 노인 환자 분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11>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여 답답함>
 자기 할 말만 하고 이제껏 살아온 고집대로 할려고 하니까..
 말 안 듣는 어련애 같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한 기준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이 화나고 답답하죠. <7>
 <이해를 잘 해주고 관대하여 마음이 편안함>
 딜레이 되는 상황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는 것도 좋았고...

젊은 사람들보다 관대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애.
 어르신들은 짜증내고 이래도 참 미안해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5>
 <낮추어보고 반말하여 불쾌함>
 니가 지금 어디 어른한테, 진짜 막 큰소리치면서, 그날 내내 병동에서 울면서 일했어요.
 자기 자식인 양 반말을 기분 나쁘게, 하인 부리듯이, 하대하는 식의 반말하시는 분들 있을 때 불쾌하다. <4>

4) 네 번째 주제: 전문적인 노인 간호 실무가 필요함

네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은 노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노인 간호 실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노인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하여 보호해주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하며, 설명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종 시에는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아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마다 건강 상태나 이해력 등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모음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함>, <눈높이에 맞는 쉬운 말로 친절히 설명해야 함>, <외롭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임종간호가 필요함>, <노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함>, <젊은 사람과 같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환자의 안정을 위해 정서적인 지지가 더 많이 필요함>, <노인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함>의 7가지가 해당된다.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함>
 노인 환자는 연약하다. 약하고 의존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냥 경청해 줄라고 하지. 소외감 느끼고 우울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 존재지.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호해 줘야 되고... <6>
 <눈높이에 맞는 쉬운 말로 친절히 설명해야 함>
 우리가 하는 설명을 못 알아듣고 하니깐, 그 분들한테 맞는 언어를 써야 되니까..
 노인 환자들은, 친절히 대화하고 그 사람 반응을 확인하면서 경청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5>
 <외롭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임종간호가 필요함>
 결국엔 돌아가시잖아. 마지막으로 좀 편안하게 보내

켰으면, 마지막 가는 길에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환자한테...〈4〉

〈노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함〉

우리 입장에서 쓰는 호칭은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의외로 어르신하면 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안
좋아하는 거라.

급하다라도 이름을 불러줬으면, 이름 다음에 할아버
지, 할머니를 붙이든지...〈3〉

〈젊은 사람과 같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
해야 함〉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발 그냥 자신을 그냥 놔둬라 울
면서 거절했던 적이, 노인 환자들도 나랑 똑같이 부끄럼
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를 알고...〈5〉

〈환자의 안정을 위해 정서적인 지지가 더 많이 필요함〉

정서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줘야 되고...

다른 성인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첫 번째 역할은 간
호사가 해야 된다고, 그게 곧 환자의 안정이고 안정이 곧
치료가 빨리된다.〈3〉

〈노인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함〉

개인별로 건강 차이가 뚜렷한 것 같아요.

노인 환자인데 의외로 80세라 해도 정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학력하고 관계되는지도 모르겠지만 60후반이
라도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정말 못 알아 듣고요.

입원도 잘 안하고 노인이고 시골에 사시고 이런 분들
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2〉

5) 다섯 번째 주제: 무책임한 보호자에게 화가 남

다섯 번째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의 무책임한 보호자들
에게 화가 난다고 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의 보호자
인 자녀들이 환자 옆에 있지 않고 혼자 있게 하는 것에 화가
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노인 배우
자인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아 힘이 든다고 하였다. 그 외
노인 환자 치료결정권이 자식에게 있는 것에 화가 난다고 하
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모음에는 〈노인 환자를 방치하는 보
호자에게 화가 남〉, 〈보호자도 노인이라서 협조가 되지 않아
힘이 듦〉, 〈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자식에게 있어 화가 남〉이
해당한다.

〈노인 환자를 방치하는 보호자에게 화가 남〉

환자를 혼자 놔두고, 무책임하게, 화가 나요.

좀 방치하는 느낌이...

보호자들, 진짜 안 좋을 땐 없다가 좀 나아지면 와가지
고, 왜 이러냐고 난리치거나, 그게 싫지.〈9〉

〈보호자도 노인이라서 협조가 되지 않아 힘이 듦〉

보호자도 노인이라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도 않고, 설
명을 해도 빨리 못 알아듣고 하니까는...

너무 협조가 안 되니까, 말만 더 하시면서 귀찮게 하
시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나...

저래서 할머니 간병이 제대로 되겠나...〈4〉

〈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자식에게 있어 화가 남〉

나는 못한다 그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자기
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게 화가 나요.

자식들이 판단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치료의 질과 양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2〉

6) 여섯 번째 주제: 노인을 돌봄으로써 보람을 느낌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을 돌봄으로써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가 간호사인 자신
을 좋아해주어서 기분이 좋으며, 노인 환자를 보면서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여 부모에게 더 잘 해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고 하였다. 또한 노인 환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비추
어 노후를 준비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노인 환자가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
하는 주제모음에는 〈간호사인 나를 반겨주어 기분이 좋음〉,
〈나의 부모를 비추어 보며 다짐을 함〉, 〈노후를 준비하는 마
음을 가짐〉, 〈노인 환자가 회복되어 보람을 느낌〉의 4가지가
해당된다.

〈간호사인 나를 반겨주어 기분이 좋음〉

나만 기다린다고 얘기 했을 때 뿌듯하죠.

정이 더 가고 더 잘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힘든데 그 방만 가면 할머니가 누구 왔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5〉

〈나의 부모를 비추어 보며 다짐을 함〉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아버님 화장실 가실 때 항상 조
심하라고 얘기하거든.

나도 늙어 갈거니까, 나도 부모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잘 하는 걸 보면, 나도 잘해줘야
겠구나 생각되고...〈4〉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짐〉

나도 나중에 노인이 되면,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한번 더 이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자.

늙어서 1인실이나 2인실, 내가 원하는 대로 병실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노인 환자가 회복되어 보람을 느낌>

노인 환자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간호를 해가 지고 회복되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보람 있게 생각되고...

회복이 된다고 해야 되나, 뿌듯하고... <2>

2. 병원간호사의 노인 입원 환자 간호경험에 대한 통합적 진술

위에서 도출된 6개의 주제를 통합하여 병원간호사의 노인 환자 간호경험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를 돌보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하였다. 노인 환자들의 지병 등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많으며, 여러 번 설명을 해야 하기에 힘이 들며 낙상이 항상 걱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는 반드시 옆에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를 고려한 병원의 시설, 제도, 인력 및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개조해야 하며, 진료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노인전용 설명문을 제공하며 병동 간병인 제도와 노인 환자 전용병동 등의 제도적 개선을 언급하였다. 또한 노인 환자와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며, 노인 환자가 많은 병동에는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간병인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 환자 간호 교육은 질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노인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기에, 노인간호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나, 치료절차에 대한 고집을 피울 때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 등의 노인에 대한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에게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간호사들은 노인 환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환자들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하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 환자의 입종 시에는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며, 간호 처치 시에는 환자의 개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들

도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노인마다 개별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노인 환자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자녀 된 보호자들이 노인 환자를 병원에 혼자 두고 옆에서 돌보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고 하였다. 노인의 치료결정권이 노인자신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는 것도 화가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노인들을 돌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비추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간호로 노인 환자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들이 급성기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한 것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결과 노인 환자들에게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마련하여야 할 대비책을 논할 수 있다. 먼저 연구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노인 환자 간호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서, 이는 노인 환자들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건강문제, 이해력 부족 및 낙상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노인 환자 간호에 대한 업무 부담감은 다른 노인간호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im, 2009; Lee, J. S., 2010; Lee, M.-H., 2010). 즉 간호사들이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다른 연령층의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그들에게 항상 주의를 집중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급성기 종합병원의 업무상 간호사들은 급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나, 노인들의 느린 페이스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다(Dahlke & Phinney, 2008). 이러한 노인 환자를 돌보면서 끝없이 요구되는 일상적인 돌봄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긴장의 연속으로 인한 업무 부담감은 간호사들이 소진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Lee, J. S., 2010). 더불어 노인 환자대 간호사의 비율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노인 환자들과의 치료적 의사소통의 축소와 부적절한 정보제공 등으로 간호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Oyetunde, Ojo, & Ojewale, 2013). 따라서 노

인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급성기 병원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간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와 배치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에서 마련하여야 할 시설, 제도 및 교육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의 경우 노인 환자의 낙상의 주된 요인이 되기에(Hignett, 2010), 노인들이 사용하는 침대는 높이를 낮추는 등의 노인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돌봄 요구도가 높고 재원기간이 긴 노인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 내에 노인 환자 전용 병동과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편리를 도모해야 하며, 노인들의 가독성을 고려한(Kim & Lee, 2014) 노인전용 설명문을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현재 노인 환자 간호가 질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노인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노인간호 관점이 의학적인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노인들의 긴 인생 여정의 복합적인 존재를 고려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Quinn et al., 2004), 간호사 교육에서는 노인들의 심리, 가족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을 드러내고 있다(Mellor, Chew, & Greenhill, 2007; Park & Park, 2007). 이러한 노인간호 교육은 최근 1년 이내 노인간호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약 73%인 것을 고려할 때(Kim et al., 2010), 병원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정기적인 노인간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간호사 계속교육은 노인간호에 필요한 태도, 공감, 가치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에(Burggraf & Barry, 1998), 노인입원율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는 노인간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필수가 될 것이다. 간호사 계속 교육의 주된 동기가 전문역량 유지 및 개발임을 고려한다면(Han & Lee, 2010), 병원에서는 신규간호사 교육이나 병원 내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 노인간호에 대한 계속 교육으로 노인간호 역량을 유지 및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사들은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노인 환자들은 정서적 지지가 더 많이 필요하며, 그들의 이해력에 맞춘 언어로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불러주는 등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간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주로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노인에 대한 맞춤형 간호를 제안하였으며, 노인 환자들의 신체적 간호보다는 주로 정서, 심리, 영적인 측면에 대한 간호를 언급하였다. 다른 연령대의 환자들과는 달리 노인 환자들에게는 사랑과 관심, 심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Lee, M.-H., 2010)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은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영적인 측면을 함께 돌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로 본 연구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과 그 가족 보호자들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었다. 먼저 간호사들은 노인들의 취약한 상황과 그들의 관대함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노인들의 고집 센 모습이나 간호사를 비하하는 언행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들이 노인들에게서 딸이나 손녀처럼 대해주어 친밀함을 느끼나, 동시에 받기만 하려고 하며, 고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Chung & Lee, 2009; Seo & Ahn, 2006). 이러한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는 노인 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간호사들이 노인들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세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간호 실천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Kim & Kwon, 2009) 고려할 때,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Kim & Kwon, 2009; Park & Park, 2007)와 간호사들의 노인과의 동거경험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Lee, 2011) 노인간호 교육 뿐 아니라, 간호사들과 노인세대 간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간호사들이 노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의 보호자에게 화가 난다고 하였다. 이는 주로 노인 환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과 관련이 되었다. 간호사들은 노인 환자의 건강상태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젊은 성인 자녀가 환자 옆에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세대가 증가되어 성인 자녀들에게만 간병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에 병동 간병인제도 등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자신의 치료과정 의사결

정권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노인 환자의 경우 대부분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채 가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 Lee, M.-H. (2010)의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견 뿐 아니라, 노인 자신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을 돌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등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을 다룬 기존 질적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였다(Kim, 2009; Lee, M.-H., 2010). 이와 같이 간호사들은 노인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단순히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인 환자들을 통하여 자신과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회복되는 노인들을 볼 때 보람을 느끼는 등 노인간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급성기 병원간호사들의 노인간호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노인들을 돌보면서 간호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호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노인 환자들을 위한 시설, 제도, 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노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 외 참여자들은 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드러내었으며, 노인을 돌보면서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의료기관에서 노인 환자들에게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 환자 입원율이 높은 종합병원의 병동에서는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이 병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간호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간호에 대한 총체적이며 정기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노인 환자들의 특성과 노인간호 실무와 관련된 결과는 추후 노인간호 교육과 실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중심의 노인간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인 입원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도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urggraf, V., & Barry, R. (1998). Gerontological nursing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4*(6), 29-35.
- Chung, S. E., & Lee, S. H. (2009). Nurses' experiences of practice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1), 116-127.
- Dahlke, S., & Phinney, A. (2008). Caring for hospitalized older adults at risk for delirium: The silent, unspoken piece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4*(6), 41-47.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 Han, S. M., & Lee, H. S. (2010). Nurses'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continuing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2), 189-204.
- Hignett, S. (2010). Technology and building design: Initiatives to reduce inpatient falls among the elderly. *Health Environments Research & Design Journal, 3*(4), 93-105.
- Jung, J. Y., & Yun, S. Y. (2012). Elder care related knowledge, attitudes, nursing practice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in geriatric hospital health personne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4*(3), 233-241.
- Kim, B. H., Kim, K. J., Park, I. S., Lee, K. J., Kim, J. K., Hong, J. J., et al.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Kim, C., & Kwon, Y. (2009). The relationship with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 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13*(1), 39-50.
- Kim, H. J. (2009). *Nurses' experience of caring for elderly patients in the medical intensive care un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J. S., Kim, K., Kim, M. H., & Kim, H. S. (2010). Nurse education needs related to knowledge and practice of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2*(2), 177-189.
- Kim, K. B., Lim, J.-B., & Sok, S. (2007). Knowledge and attitude of nurses towar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3*(1), 13-21.
- Kim, Y. J., & Lee, G. E. (2014). Evaluation of readability of health leaflets and health literacy of elderly inpatients in a medical center.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6*(1), 9-17.
- Lee, H. J. (2011).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mong nurse, doctor, care-helper*. Unpublished master's

-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J. S. (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burnout experience for nurses in geriatric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 Lee, M.-H. (2010). Nurses' experience of caring for elderly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Theses Collection*, 45, 449-457.
- Mellor, P., Chew, D., & Greenhill, J. (2007). Nurses' attitudes toward elderly people and knowledge of gerontic care in a multi-purpose health service (MPHS).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4), 37-41.
- Oyetunde, M. O., Ojo, O. O., & Ojewale, L. Y. (2013). Nurses' attitude toward the care of the elderly: Implications for gerontological nursing train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7), 150-158.
- Park, S. Y., & Park, Y. S. (2007). Geriatric hospital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and geriatric nursing education need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1), 59-65.
- Quinn, M. E., Berding, C., Daniels, E., Gerlach, M. J., Harris, K., Nugent, K., et al. (2004). Shifting paradigms: Teaching gerontological nursing from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0(1), 21-27.
-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 Seo, Y. J., & Ahn, O. H. (2006). A study on nurses' attitude toward elderly people: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2(2), 31-39.
- Statistics Korea. (2013a). *2013 Statistics on the aged*. Retrieved September 30, 2013,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08688
- Statistics Korea. (2013b). *2012 Patient Survey*. Retrieved July 15, 2014, from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30&inputYear=2012>
- Van Kaam, A. (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New York: Doubleday.